

K-POP Rise & Release



2025.07.02

장지혜 엔터·미디어·음식료 02-709-2336 / jihye.j@ds-sec.co.kr

K-pop R&R 001. 방탄소년단(BTS)이 돌아왔습니다

K-pop R&R은 K-pop 아티스트의 활동 성과 및 업종 내 주요 이슈를 분석하는 자료입니다. 주목할 만한 아티스트의 성과 (Rise)와 음반/투어 일정 공개 소식(Release)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.

■ 방탄소년단(BTS) 2026년 봄 단체 앨범 발매 후 월드 투어 진행 의지 밝힘

- 전일(7/1) BTS는 위버스 라이브로 2026년 봄 완전체로 새 앨범 공개 후 월드 투어 진행 계획을 팬들과 공유
- 앨범 공개는 22년 6월 앤솔로지 <Proof> 이후 4년만, 20년 2월 정규 4집 <MAP OF THE SOUL:7> 이후 6년만
- 월드 투어는 18-19 <Love Yourself> 이후 7년만으로 해당 공연은 모객수 200만명, 매출액 2.5억 달러 기록
- 리더 RM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함께 음악 작업에 집중할 계획이며 26년 봄 신규 앨범이 나올 것이라고 밝힘
- 그전에도 SNS와 위버스를 통해 팬들과 소통 지속할 것이며 초심으로 돌아가 준비하겠다는 의지 밝힘

■ BTS 앨범 및 투어 활동 성과는 2026년 하이브의 실적 성장 및 엔터 업종의 모멘텀 될 것

- 당사는 BTS의 완전체 활동에 따른 하이브 실적 기여 매출액을 1.4조원으로 추정(24년 전체 매출액의 61% 수준)
- 앨범 판매량 500만장, 투어 모객수 400만명, MD는 공연 티켓 매출의 절반으로 가정
- 음원 및 MD 수익 확대에 따른 추가 수익도 가능. 최근 K-pop 공연 티켓 단가 상승도 긍정적
- 하이브의 주가는 YTD +62% 상승했으며 BTS 전역이 이루어진 6월 한달 간 주가는 16% 상승
- 하이브의 PER 밸류에이션은 컨센서스 기준 25년 53배, 26년 35배. BTS 성과에 따라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 전망

그림1 BTS 위버스를 통해 완전체 소식 공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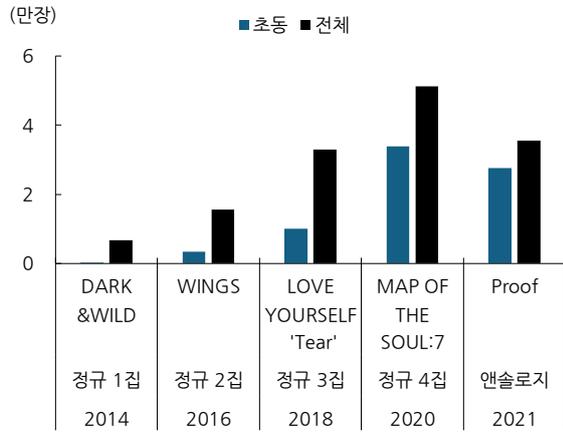
자료: 위버스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 BTS 성과 실적 가정

구분		BTS
앨범	$A=a*b$	750억원
이전 판매량		MAP OF THE SOUL : 7(초동 337만장)
신규 앨범 판매량	a	500만장
판매 단가	b	15,000원
공연	$B=c*d*e$	$(c*d*e)$ 8,000억원
이전 공연 모객수		18-19 Love Yourself(200만명) 20-21 Map of the Soul(350만명+)최소
26-27 모객수	c	400만명
티켓 가격	d	25만원
할인율	e	80%(유통수수료 제외 및 일부 MG)
MD	$C=c*d*f$	5,000억원
티켓 매출 대비	f	50%
합산 매출	$A+B+C$	1.4조원
24년 매출액		하이브 매출액 2.2조원
24년 매출액 대비		61%

자료: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추정

그림3 BTS 정규 앨범 판매량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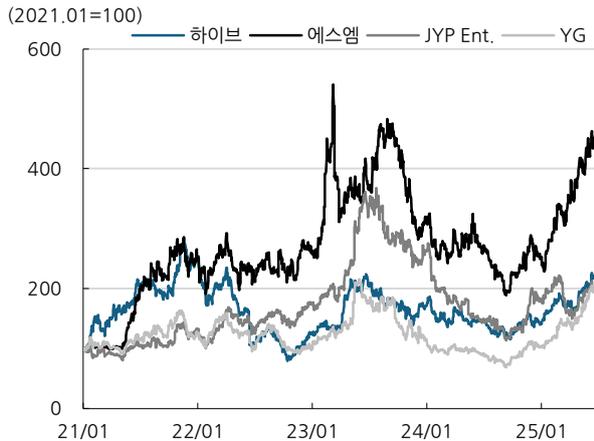
자료: 한터차트, 씨클차트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4 엔터 4사 공연모객수와 가중평균 PER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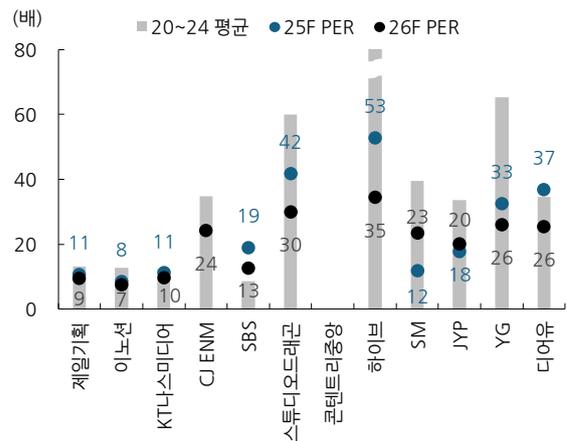
자료: FnGuide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추정

그림5 엔터 4사 주가 추이(2021~)



자료: FnGuide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6 미디어-엔터 PER 밸류에이션 비교



자료: FnGuide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-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